

진귀한 보석으로, 진귀한 뜻 전하다.

藝

가치 있는 책을 아름답게, 오랫동안 보존코자 시작된 예술제본. <출판저널>은 텍스트에 대한 관심뿐 아니라 책의 미적 가치와 보존에 대한 관심 확대를 반영하고 이를 권하는 의미에서 예술제본가 백순덕(40) 씨로부터 다양한 예술제본서에 얽힌 이야기를 들어보려 한다. 아름다움과 생명력을 동시에 갖춘 책 8월의 예술제본은 중세 전기(Haut moyen age)의 제본으로 금속 세공된 제본(reliures d' orfevrerie)서다.

術  
製  
本

중세는 제본이 예술로서 찬란하게 꽃피우게 된 시기다. 중세의 사원을 중심으로 모든 지적·예술적 활동이 이루어지게 된다. 작품들은 경건하면서도 화려하게 채색되어 있고, 이러한 작업은 리가토르(ligator: 제본의 책임을 맡은 수도승)에 의해 진행된다. 겉표지는 금, 은, 상아나 보석 등을 장식으로 박아 넣는 기법의 유행을 낳게 되는데 이를 하여 <보석세공 제본>이라 불리운다. 또 어떤 책들은 비잔틴의 에메랄드와 상아를 이용한다고 하여 <비잔틴 제본:reliure Byzantines> 이라고도 한다. 진귀한 책에는 보석뿐만 아니라 값비싼 빌

로드나 비단(단색이나 수놓아진)을 사용하기도 했고 그 가치가 덜한 책에는 암페지, 사슴, 양, 소가죽 등을 사용하기도 하였다. 무거운 in-folio(2절판의 책)의 크기가 주를 이루었고 양피(parchemin)로 된 책 내부는 쇠심줄로 꿰매었다. 책이 잘 닫혀 있도록 잠금쇠가 달려 있으며 책의 가장자리에는 금분을 입혔다. 물론 이런 진귀한 책들은 악보대에 진열하거나 평평한 면에 눕혀놓는 형태였으며, 이런 책 진열방식은 서가(bibliothèque)가 등장하는 중세말까지 계속된다. 이 사진에 소개된 것은 9세기(IX siècle)의 메츠(Metz)

의 미사용 북음서로, 헤드밴드(꽃친)는 두 가지 색실로 꼬아 만들었으며 가죽으로 전체를 씌운 후 표지 중앙에 상아조각을 넣고 가장자리는 에메랄드와 보석들을 박아 넣는 기법을 사용했다.

중세가 인간보다는 신의 시대였음을 감안하더라도 중세 사람들은 왜 이렇게 책에 비싼 보석들을 사용했을까? Saint Jérôme의 말이 답을 줄 것이다. “당신들은 책에 진귀한 보석들로 새 옷을 입히세요. 예수께서는 벌거벗고 고독하게 돌아가셨으니.”

글 · 백순덕 | 예술제본가, 렉뜨베르소 대표